

#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변화와 효과

유병규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민주홍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95년에 들어서도 엔高 효과 등에 힘입어 국내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수출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이른바 '新3高 現象'이 가시화 되고 있다. 금리와 해외 원자재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원貨 환율도 절상 추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경제 변수들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찾아보기로 한다.

## 수출 추이와 경쟁력

### 외부 조건에 의한 수출 증가

그 동안 우리 수출은 협소한 시장과 빈약한 부존 자원 속에서 국내 경제가 빠른 성장

을 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실질 수출 증가율은 15.0%로 이 기간 동안 국민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인 8.1%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30% 내외를 유지해 왔으며 94년의 경우에 그 비중은 36.7%에 달하고 있다.

<표 1> 수출과 국민 경제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 비중	29.8	30.5	32.2	34.0	36.7
수출 기여율	14.1	38.4	66.0	65.5	67.5

자료: 통계청, 「한국 경제 주요 지표」, 1994. 8.

특히 국내 수출은 86~88년의 3년 동안에 연평균 32.2%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89년과 90년에는 각각 2.8%와 4.2%라는 낮은 성장률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다행히 91년부터 수출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94년에는 17.1%의 성장률

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60%대를 기록함으로써 최근의 경제 성장이 수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 수출이 그간의 부진의 늪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	650.2(4.2)	718.7(10.5)	766.3(6.6)	822.4(7.3)	962.6(17.1)
미국 비중(%)	29.8	25.8	23.6	22.1	21.4
중국 비중(%)	0.9	3.5	3.5	6.3	6.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1994. 12.

주: ( ) 내는 증가율(%)임.

그러나 최근의 수출 증가는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국내 수출 상품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엔고와 중국 시장 개방, 아시아의 개발 수요 증가와 같은 해외 경제 여건의 개선이 수출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는 반면에 중국과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같은 외부 조건의 개선에 의한 수출 신장은 외부 조건이 해소될 경우에 수출 증가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악화되기 전에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 취약한 가격 경쟁력 조건

수출 경쟁력은 크게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란 상품 가격에서 경쟁국들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각 나라의 임금, 금리, 환율 조건과 해외 원자재 가격 등이다. 이에 비해 비가격 경쟁력은 품질 면에서 다른 나라 국가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상품의 제조 기술, 디자인, 실용성, 마케팅 능력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양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반면 가격 경쟁력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가격 경쟁력 결정 조건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임금, 금리, 환율 조건이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을 보면 91년부터 93년까지 한국이 5.1%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대만과 일본은 이보다 작은 4.0%와 3.1%에 머물렀다.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도 대만과 일본이 각각 92년 기준으로 2.3%와 2.0%인데 비해 한국은 93년 현재 5.9%로 경쟁국들보다 두 배 이상 크다. 對美 달러 환율 조건을 보면 일본이 94년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3%라는 큰 폭의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

나, 한국 역시 같은 기간 2.5%가 절상되어 1.3% 절상에 그친 대만보다 높은 절상률을 기록하였다.

<표 3> 가격 경쟁력 비교

	한국	대만	일본
단위 노동 비용(%)	5.1	4.0	3.1
금융 비용/매출액(%)	5.9	2.3	2.0
對美달러환율절상률(%)	2.5	1.3	12.3

자료: 한국은행.

주: 환율 절상률은 94년 말 기준 전년대비 절상률, 금융 비용/매출액 중 한국은 93년, 대만과 일본은 92년 기준, 단위 노동 비용은 91년부터 9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 ‘新3高 現象’의 조짐

최근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금의 경우는 90년부터 실질 임금이 10% 내외에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사채 수익률과 해외 원자재 가격은 93년 이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91년에 18.9%로 급등했던 회사채 수익률은 92년부터 하향세로 돌아섰으나 94년 말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95년 3월 20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은 14.8%로 92년 회사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90년대 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금리의 상승세는 통화 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 상승세의 유지에 의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92년까지 하향 추세였던 해외 원자재가 도 93년부터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93년에

전년대비 45%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로이터 지수는 94년에 이보다 4 배 정도 높은 18.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95년에 들어서도 이러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94년 말부터 국제 원유가도 상승세에 있다. 9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WTI 현물 유가는 94년 초에 14.72\$/bbl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95년에 들어서서는 3월 20일 현재 18.59\$/bbl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해외 원자재가의 상승 추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엔高 현상이 진행되는 중에 원貨의 對美 달러 환율도 절상되고 있어 엔高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90년 이후 꾸준히 절하되던 對美 달러 원貨 환율은 94년 하반기부터 절상되고 있다. 94년 말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5%가 절상되었던 對美 달러 원貨 환율은 95년에 들어서서는 절상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국내 금융 시장의 개방 확대에 의한 외자 유입 증가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貨 환율의 절상 추세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금리, 해외 원자재가, 對美 원貨 환율 조건이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에 국내 경제는 이른바 ‘新3高 現象’에 직면케 될 가능성이 크다.

<표 4> 임금·금리·해외 원자재가·환율의 변동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실질 임금 상승률(%)	10.7	7.6	11.2	5.1	..	..
회사채 수익률(%)	16.5	18.9	16.2	12.6	12.9	14.8
로이터지수(1931.9.18=100)	1816.5	1683.6	1596.8	1668.3	1978.7	2313.0
OPEC현물평균유가(\$/bbl)	24.45	21.49	20.56	18.46	17.22	18.59
미원화환율(원/\$)	707.8	733.3	780.8	802.5	803.8	775.7

주: 기간 중 평균이고 1995년은 3월 20일 현재 값임.

### ■ '新3高'의 영향

新3高 현상이 초래될 경우에 국내 수출이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에는 부정적 효과와 함께 긍정적 효과도 파악된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수출과 경제 성장에 파악될 부정적 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평가된다.<sup>1)</sup>

### 국내 금리 상승

금리 상승은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 단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또한 원화 환율을 절상시킴으로써 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수출의 둔화와 함께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어 경제 성장률이 저하

된다. 그러나 성장률 저하와 원화 환율의 절상에 의한 수입 비용 감소로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본 분석에 의하면 시중 실세 금리지표인 회사채 수익률이 10% 상승할 경우에 금액 기준으로 상품 수출은 2차 년도부터 감소세로 반전되어 3차 년도에는 감소폭이 0.14%로 확대된다. 국민 총생산은 감소폭이 2차 년도에 0.32%까지 이르고 3년 평균으로는 0.3% 감소한다. 소비자 물가는 1차 년도의 0.23%에서 3차 년도에는 0.59%의 하락세를 견지한다.

<표 5> 금리 10% 상승의 영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상품 수출(%)	0.01	-0.03	-0.14	-0.05
국민 총생산(%)	-0.15	-0.32	-0.44	-0.30
소비자 물가(%)	-0.23	-0.52	-0.59	-0.45

###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큰 폭의 비용 부담을 유발하므로 수출 단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 또한 가격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

1) 여기서는 本院의 계량 모형(「한국의 경제·산업 계량 모형」,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2.)을 이용하여 금리, 수입 원자재가, 對美원화 환율의 상승이 수출, 경제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외생 변수의 변화가 내생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간 경로를 통해 분석하는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였다.

를 수반하여 수출 감소의 요인이 된다. 또한 원자재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수출 감소와 물가 상승에 의한 국내 소비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된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에 상품 수출은 2차 년도에 0.01%의 감소세를 보이며 3년 평균으로는 0.01%가 감소하게 된다. 물가는 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 유지되어 평균 0.92%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총생산은 1차 년도에 0.23%가 감소된 이후 3차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어 평균 0.56%가 감소하게 된다.

<표 6> 수입 원자재 가격 10% 상승의 영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 균
상품 수출(%)	0.01	-0.01	-0.04	-0.01
국민 총생산(%)	-0.23	-0.60	-0.84	-0.56
소비자 물가(%)	0.44	1.11	1.20	0.92

### 원貨 절상

원貨의 평가 절상은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 상품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경쟁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원貨 절상은 국내 총수요를 감퇴시키고 수입 단가를 하락시킴으로 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貨 환율이 10% 절상하는 경우에 상품 수출은 1차 년도에는 J 커브 효과 등에 의해 소폭 증대하나 2차 년도부터는 큰 폭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3차 년도까지 각각 2.89%, 4.56%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국민 총생산은 2차 년도에는 1.11%까지 감소하며 기간 전체로는 1.0%의 감소폭을 보인다. 물가는 1차 년도부터 하락세가 계속되어 3년 평균 물가 하락폭이 1.89%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 하락폭은 수출 감소분보다는 작은 것이다.

<표 7> 對美 원貨 환율 10% 절상의 영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 균
상품 수출(%)	0.26	-2.89	-4.56	-2.40
국민 총생산(%)	-0.24	-1.11	-1.65	-1.00
소비자 물가(%)	-1.16	-2.02	-2.48	-1.89

### '新3高' 영향의 종합 평가

新3高 현상이 가시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물가 하락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나, 수출 감소와 무역 수지 적자 확대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와 수입 원자재가 10%씩 상승하고 원貨의 對美 환율이 3% 절상될 경우에 수출은 2차 년도(1996년)에 0.66% 감소한 후 3차 년도(1997년)에는 1.11%로 감소폭이 확대된다. 반면 수입은 원高에 의한 수입 단가 하락으로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원자재의 상승

<표 8> '新3高'의 영향

		1995	1996	1997
상품 수출 (BOP기준)	증가액(억 달러)	0.3	-6.8	-12.7
	증가율	0.04	-0.66	-1.11
상품 수입 (BOP기준)	증가액(억 달러)	14.8	13.2	3.6
	증가율	1.63	1.34	0.34
무역 수지 (개선액 : 억 달러)		-14.4	-20.1	-16.2
국민 총생산 (%)		-0.61	-1.34	-1.70
소비자 물가 (%)		-0.29	-0.49	-1.28

주: 원화 3% 절상, 수입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 금리가 10% 상승된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임.

에 따르는 수입 금액 증가 요인이 있으나,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르는 투자 부진에 의한 수입 감소 요인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된다. 따라서 수입은 1차 년도에 1.63% 증가한 후 증가율이 계속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입 둔화 폭보다는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서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총생산은 투자 및 수출 감소에 따르는 총수요 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나타내 1차 년도에 0.61%가 감소하고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는 각각 1.34%와 1.70%가 감소한다. 소비자 물가는 총수요의 둔화에 의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하락 폭은 수출 감소율이나 경제 성장률 둔화 폭보다 작게 나타난다.

#### ■ 엔高 속 원高의 영향

국내 경제 변수의 상승에 따르는 수출 경

쟁력 상실의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 최근의 엔高 현상이다. 엔貨 절상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상 수지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엔高가 진행되는 동안 원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 이러한 엔高 효과는 상당 부분 훼손을 당하게 된다.

#### 엔貨 절상

엔貨의 對美 달러 환율이 10% 절상될 경우의 예측 결과를 보면 수출 증가세는 1차 년도(1995년)에 2.29%, 2차 년도에 2.69%, 3차 년도에는 2.44%의 상승 폭을 보인다. 경제 성장률은 수출 증대 및 소비·투자 수요의 상승으로 인하여 1차 년도에 0.42%, 2차 년도에 0.52%까지 증가하며 기간 전체로는 0.43% 증가한다. 한편 물가는 총수요의 증대로 인해 2차 년도 이후 상승 폭이 커지면서 3차 년도에는 0.27%가 상승하게 된다.

엔貨와 원貨의 동반 절상

엔貨와 원貨가 동시에 절상될 경우에 원貨 절상은 엔貨 절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들을 급격히 상쇄시킨다. 엔/달러가 10% 절상되고 원/달러가 3% 절상되는 경우의 예측 결과를 보면, 상품 수출의 경우 효과 발생의 1차 년도인 1995년에는 엔高 효과만 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96년부터 원高에 의한 수출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엔高 속 원高는 엔高만 존재할 때의 수출 증가분을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0.6%p와 0.72%p 씩 감소시킨다. 이에 비해 수입은 엔高만 있을 때보다 원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그 증가 폭이 커진다. 엔高에 원高가 겹칠 경우에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0.53%p와 0.34%p의 추가적인 수입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 개선 폭이 감소한다. 95년의 경우에 무역 수지 개선 폭이 4.4억 달러 축소되며 96년과 97년에는 오히려 적자 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면에서도 엔高의 긍정적 효과가 축소된다. 엔高에 의해 95년에는 0.42%의 국민 총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나나 원高에 의해 0.29%로 축소되며, 96년에는 0.52%에서 0.17%로 97년에는 0.36%에서 0.04%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반해 소비자 물가는 엔高로 인한 총수요 증대 효과가 원高로 인한 상대적인 수입 단가 하락 및 총수요 감소 효과로 상쇄되어 엔高에 의한 물가 상승분이 축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 감소 효과는 수출 감소와 국민 총생산 감소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엔高 속 원高의 영향

		1995		1996		1997	
		엔화 절상	엔화·원화 동시 절상	엔화 절상	엔화·원화 동시 절상	엔화 절상	엔화·원화 동시 절상
수출 (BOP기준)	증가액(억 달러)	21.6	21.7	28.0	21.7	27.9	19.5
	증가율	2.29	2.30	2.69	2.09	2.44	1.72
상품 수입 (BOP기준)	증가액(억 달러)	9.4	13.8	18.9	22.5	24.8	23.5
	증가율	1.04	1.57	1.91	2.25	2.29	2.17
무역 수지 (개선액 : 억 달러)		12.2	7.8	9.1	-0.8	3.1	-4.0
국민 총생산(%)		0.42	0.29	0.52	0.17	0.36	0.04
소비자 물가(%)		0.06	-0.15	0.18	-0.07	0.27	-0.09

주: 1) 엔貨 절상은 엔貨만 10% 절상되었다고 가정하고 분석함.  
 2) 엔貨·원貨의 동시 절상은 엔貨 10% 절상, 원貨 3% 절상을 가정하고 분석함.

“新3高”의 산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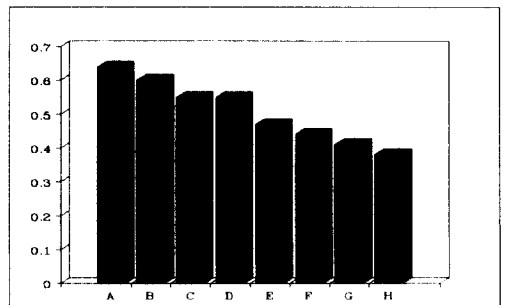
금리 상승

금리와 수입 원자재가의 상승은 산업별 물가를 오르게 하고 對美 元貨 환율의 절상은 수출 단가를 상승시켜서 각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원貨 절상은 수출 가격 전가율이 100%가 되지 못할 때 원貨 표시 상품 가격을 하락시켜서 수출 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근의 엔高가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가격 파급 모형을 활용하여 금리와 원자재가의 상승이 산업별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sup>2)</sup>

2)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르는 산업별 물가 파급 모형은  $\dot{p} = (I - A^d)^{-1} A^m \dot{p}_m$  이며, 금리 상승에 따르는 산업별 물가 파급 모형은  $\dot{p}^d = (I - A^d)^{-1} A^{ds} \dot{p}_{sd}$ 이다. 여기서  $\dot{p}$  = 가격 변동률,  $A^d$  = 국산품 투입 계수의 전치 행렬,  $A^m$  = 수입품 투입 계수의 전치 행렬,  $\dot{p}_m$  = 수입품 가격의 변동률이며 본 분석에서는 원유 및 천연 가스와 비금속 광물 수입 가격이 10% 상승한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dot{p}^d$  = 산업별 가격 변동률,  $A^d$  = 가격이 변동된 산업을 제외한 국산 투입 계수의 전치 행렬,  $A^{ds}$  = 가격이 변동된 산업에 대한 국산 투입 계수 벡터의 전치 행렬,  $\dot{p}_{sd}$  = 가격 변동 산업의 변동률이며 본 글에서는 금융 및 보험 가격 즉 공금리가 10%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모형들의 분석은 1990년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첫째, 금리 상승이 원자재가 상승보다 산업별 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가 10% 상승에 따르는 제조업 평균 가격 상승 효과는 0.29%인데 비해 금리 10% 상승에 의한 제조업 평균 가격 상승 효과는 0.51%이다. 이는 국내 산업의 금융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금리 상승에 따르는 가격 상승 효과가 큰 산업은 섬유 및 가죽, 수송 기계, 정밀 기기, 금속 제품, 화학 제품 순이며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 영향이 작은 산업은 전기·전자 기기, 일반 기계, 제1차 금속 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 및 가죽 산업은 금리가 10% 상승할 경우에 가격이 0.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송기계는 0.6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금리 상승의 산업별 가격 파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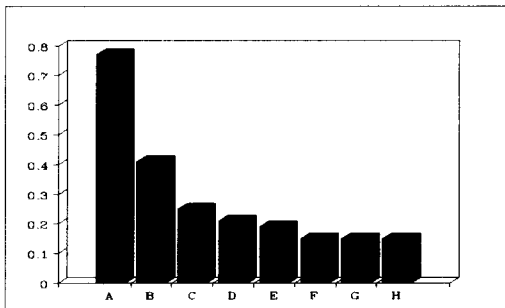
주: A: 섬유 및 가죽, B: 수송기계, C: 정밀기기, D: 금속제품, E: 화학제품, F: 제1차 금속, G: 일반기계, H: 전기전자기기



### 수입 원자재가 상승

셋째, 국제 원유가 및 수입 원자재가의 10% 상승에 의한 산업별 가격 상승 효과를 보면 화학 제품, 일반 기계, 섬유 및 가죽 산업의 가격 상승 정도가 크며 전기·전자 기기, 정밀 기기, 수송 기계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제품의 경우에 국제 원유가 및 수입 원자재가가 10% 상승함에 따라 이 부문의 물가가 0.7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기·전자 기기, 정밀 기기, 수송 기계 산업의 상품 가격은 0.15% 상승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국제 원유가 및 수입 원자재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 파급 효과



주: A: 화학제품, B: 일반기계, C: 섬유 및 가죽, D: 제1차 금속 E: 금속제품, F: 수송기계, G: 전기전자기기, H: 정밀기기

### 원화 절상

원화에 의해 발생하는 각 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를 살펴봄으로써 원화에 의해 각

산업에 파급되는 수출 감소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본 분석에서는 원화 절상에 의한 채산성 악화율이 큰 산업일수록 수출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원화 절상은 원화 표시 중간재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킴으로 원화 절상에 따르는 수출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는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채산성 악화는 각 산업의 수출 비중과 중간재 수입 비중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르는 수출 상품 가격 전가도와 중간재 수입 가격 전가도에 의존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가 세계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르는 수입 가격 전가율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원화 환율의 10% 절상에 의한 산업별 수출 채산성 악화율을 보면 환율 변동의 수출입 가격 전가율이 0인 경우에 섬유 및 가죽 산업의 채산성 악화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가 1.6%로 높고 정밀 기기와 금속 제품은 각각 1.3%의 채산성 악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환율 변동의 산업별 평균 수출 가격 전가도가 0.24라고 할 때도 섬유 및 가죽 산업의 채산성 악화율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 제품, 전기·전자 기기, 정밀 기기, 수송 기계 산업 순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변동의 수출 가격 전가도가 0.24인 경우의 100%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송 기계와 금속 제품의 채산성 악화율이

<표 10> 원貨 절상에 의한 산업별 수출 채산성 변화

	수출 비중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	채산성 변화 (A)	채산성 변화 (B)	채산성 변화 (C)
섬유 및 가죽	47	17	3.0	1.9	5.9
화학제품	13	21	-0.7	-1.0	5.5
제1차 금속	13	19	-0.5	-0.9	5.7
금속제품	23	10	1.3	0.7	6.6
일반기계	19	17	0.3	-0.2	5.9
전기전자기기	39	23	1.6	0.7	5.3
정밀기기	32	19	1.3	0.6	5.7
수송기계	15	10	0.5	0.1	6.6

자료: 한국은행, 「1990년 산업 연관표」, 1993.

곽승영, 「환율 변동의 수출입가격에의 전가도와 시사점」, 1988. 5.

- 주: 1) 수출채산성 악화율(%) = 원화 환율 변동률 × ( 수출 비중 × (1 - 수출 가격 전가도) - 총산출액에 대한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 × (1 - 수입 가격 전가도) )
- 2) 수출 가격 전가도는 곽승영의 추정치인 0.24를 사용, 수입 가격 전가도는 0으로 가정함.
- 3) 원貨 절상에 따르는 수출 물량 및 외화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았음.
- 4) 채산성 변화 (A)는 수출 가격 전가도가 0인 경우, 채산성 변화 (B)는 수출 가격 전가도가 0.24인 경우, 채산성 변화 (C)는 수출 가격 전가도가 0.24이고 100% 수출 기업인 경우에 원貨가 10% 절상되었을 때의 수출 채산성 악화율(%)임.

6.6%로 가장 컸으며 섬유 및 가죽, 일반 기계, 제1차 금속, 정밀 기기, 화학 제품, 전기·전자 기기 순으로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분석에 의하면 원貨가 절상되더라도 수출 비중이 작고 중간재 수입 비중이 큰 화학 제품, 제1차 금속, 일반 기계

<표 11> 엔高와 원高의 산업별 상쇄 효과

	효과 (A)	효과 (B)	효과 감소(%p)	감소율(%)
섬유 및 가죽	0.029	0.017	0.012	41.4
화학제품	0.027	0.016	0.011	40.7
제1차 금속	0.022	0.013	0.009	40.9
금속제품	0.008	0.005	0.003	37.5
일반기계	0.016	0.010	0.006	37.5
전기전자기기	0.024	0.015	0.009	37.5
정밀기기	0.002	0.001	0.001	50.0
수송기계	0.022	0.013	0.009	40.9
국민총생산	0.43	0.27	0.16	37.2

주: 1) 효과(A)는 엔貨의 對美 달러 환율이 10% 절상되었을 때의 산업별 성장의 3년간 평균 증가율(%)이고 효과(B)는 엔貨의 對美 달러 환율이 10% 절상되고 원貨의 對美 달러 환율이 3% 절상되었을 때의 산업별 성장의 3년간 평균 증가율(%)임.

2) 산업별 성장 증가율은 90년의 산업별 총산출액 비중에 각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국민총생산의 3년간 평균 성장 증가율을 곱하여 구한 것임. 효과 감소는 효과(A)에서 효과(B)를 차감한 것임.

산업 등은 채산성이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엔高와 원高의 산업별 상쇄 효과

엔高와 원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 엔高에 의한 산업별 성장 효과는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엔高 가치만 절상되는 경우와 엔高 환율과 원高 환율이 동시에 절상되는 경우를 나누어 산업별 성장 효과를 비교해 보면 엔高와 원高의 동반 절상은 엔高 효과를 40% 내외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 감소분이 가장 큰 산업은 정밀 기기 산업이며 그밖에 경공업의 주력 산업 분야인 섬유 및 가죽 산업 그리고 수출 주력 산업인 수송 기계, 제1차 금속 제품도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 감소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과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변수들의 상승 현상은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켜서 국내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더욱이 엔高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高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가 향유할 수 있는 엔高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주요한 정책 과제는 금리, 환율 등의 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高 환율의 급속한 절상 추세는 국내 경기 흐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高 가치의 급등은 비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상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가격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선순환은 수출 → 투자 → 성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원高 현상은 이의 첫번째 고리를 끊음으로써 현재의 경기 확장세를 허물게 된다. 원高 환율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 경제 현실에 맞는 적정 환율대가 설정되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의 공감대를 얻는 적정 환율대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환율 조작 정책이 실시될 때 국내 산업의 급격한 수출 경쟁력 상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엔高와 원高 가치의 동반 절상은 섬유 및 가죽 산업과 같은 경공업과 수송 기계, 화학 제품과 같은 주력 수출 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분석되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원고의 물가 하락 효과만 중시할 경우에 부진한 경공업 경기의 활성화를 가로막게 되며 아직까지 비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저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가 안정 정책은 이제 단순한 통화나 환율 정책보다는 재정 긴축과 과소비 억제, 농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화와 같은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